

— F-15 —

식도를 침범한 심상성 천포창 1예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 병원

*김영철 · 홍창균 · 이석주 · 정우철 · 장우임 · 양진모 · 최규용 · 정인식

서론 : 천포창(pemphigus)은 자가항체에 의해 표피의 각질형성세포들 간의 접착이 소실되어 수포가 발생하는 표피내 자가면역성 수포성질환이다. 심상성 천포창(pemphigus vulgaris)과 낙엽상 천포창(pemphigus foliaceus)이 있으며 그중 심상성 천포창이 가장 흔한 천포창이다. 심상성 천포창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과반수의 환자에서 초발병변이 구강점막에 미란 또는 수포성 병변으로 관찰되고 피부병변은 점막병변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다. 주로 침범되는 점막부위는 구강, 비인두, 비강, 결막, 자궁경부, 항문 등이며 식도에 발생하는 경우는 보고가 드물다. **본론** : 84세 남자 환자가 연하시 흉부통증과 연하곤란, 구강내 궤양 및 얼굴의 수포성 병변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얼굴의 수포성 병변의 조직검사에서 표피기저층 상부에서 표피내 수포형성과 극세포해리의 소견이 보였으며, 위내시경 검사에서 전반적인 식도의 미란 및 궤양이 발견되어 식도를 침범한 심상성 천포창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주사와 azathioprine 경구 및 cyclophosphamide 병합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구강, 피부병변 및 식도 점막병변이 호전되었다. **결론** : 심상성 천포창이 식도를 침범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른 중증편평상피로 구성된 점막과 같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나 국내 보고는 드물다. 저자 등은 식도를 침범한 중증의 심상성 천포창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F-16 —

단분절 바렛식도에서 발생한 식도선암 1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¹

*강진 · 김일두 · 김표준 · 김광하 · 김익두¹ 이창훈¹

서론 : 바렛 식도는 위식도 역류의 결과로 하부식도의 편평상피세포가 원주상피로 이행된 병변으로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에서 편평원주상피접합부가 상승되어 있고, 조직검사로 배상세포가 관찰되는 장피화생이 있을 때 확진되며, 식도 선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바렛식도는 식도위접합부 상방으로 3cm 이상 상승된 장분절 바렛식도와 3cm 미만으로 발생한 단분절 바렛식도로 분류된다. 저자들은 무증상 환자가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내시경에서 우연히 위식도접합부 선암이 발견되었고, 바렛식도에서 이행성 없이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선암을 수술로 치료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58세 남자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한 상부소화관 내시경상 식도위 경계부 악성종양 의심되어, 조직검사 시행 후 귀가한 당일 급성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평소 오심, 구토, 위산역류 증상 및 위식도 역류질환의 과거력 없이 건강히 생활하였으나, 내원시 실어증 동반되었다. 자기공명 영상촬영에서 중뇌혈관 경색으로 치료이후 시행한 위내시경검사서 식도위접합부 상방 1cm에 결절성 용기병변으로 루플 산포시 염색되지 않은 점막 병변이 관찰되고, 위식도 초음파 내시경검사서 0.8cm x 0.4cm 크기의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종괴로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단분절 바렛식도에서 발생한 선암 의심되었고, 흉부 및 복부 전산화 촬영에서 식도 이상 및 림프절 종대, 타장기 전이 소견 없어 조기식도암으로 진단되어 하부식도를 포함한 근위위 절제술 및 식도공장위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병변의 조직소견에서 바렛식도를 배경으로 하고, 이형성없이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퇴원하여 현재 재발 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